

## 연희전문의 ‘기독교주의’와 강성갑 목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천\*

홍성표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실천의 준비 - 연희전문의 기독교주의

### III.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定立)과 실천- 노작교육과 국민신앙

1. 기독교 사회운동의 시작 - 복음중등공민학교 설립
2.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
3. 한얼중학교 설립과 노작교육(勞作教育)의 실천
4. 강성갑의 국민신앙(國民信仰)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15>

\* 이 글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개최한 『화충의 전통과 근현대 한국, 그리고 연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 ABSTRACT •

---

‘Christian principles’ in Chosen Christian College and the practice of  
‘Christian Worldview’ of Pastor Kang Seong-Gab

Visiting Prof., Hong, Seongpyo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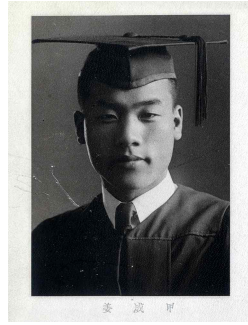
Established after a fierce debate among missionaries, C.C.C stipulated and practiced ‘Christian principles’ as the basic principle of school management, Kang Seong-Gab, whom H. H. Underwood recognized as the “greatest talent produced by Yunheui,” was a representative figure who practiced C.C.C’s ‘Christian principles.’ He led the Christian social movement to create a new country where everyone was happy in Jinyeong-eup, Gimhae-gun, and Gyeongsangnam-do,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1945~1950). Since the creative transformation of humanity, which is a self-centered being, is possible only through faith in God, he advocated and practiced ‘National belief’ to reform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the new nation liberated from Japanese rule. His practice is an essential example of the ‘Christian principles’ pursued by C.C.C. and is a meaningful historical lesson for Korean Christianity today, which has lost the trust of society.

**Key words:** National Belief, Work-oriented-education, Christian principles, Christian liberal education, Christian Values, Christian Social Movement

---

## I. 들어가는 말

연희전문의 설립과정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 중의 하나였다. 학교설립을 놓고 재한(在韓) 선교사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은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대응의 차이로 이어졌다.<sup>1)</sup> 선교사들은 조선 교회의 지도자 양성과 조선 민족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과,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주의(정신)’라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놓고 대립



〈그림 1〉 연희전문  
졸업사진

했다. 선교사들 사이의 논쟁을 거쳐 설립된 연희전문은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기독교주의’로 규정하고 정관에 명기하였으나, 기독교주의로 번역된 ‘Christian principles’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sup>2)</sup> 연희전문이 표방한 기독교주의는 학교 설립과정에 함께 했던 선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시대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립과정에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참여했기에 이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기독교주의는 엄밀한 학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추구하겠다는 실천적·윤리적인 개념에 더 가까웠기에 연구의 대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연희전문이 표방한 기독교주의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주의(Christian

1) 옥성득, “대학 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 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2021), 363.

2) 사립 연희전문학교 기독교 연합재단법인 기부행위에서 법인의 목적을 “제2조, 본 법인은 기독교주의에 의하여 연희전문학교를 설립 유지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17년 4월 7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9), 295.

principles)’와 ‘기독교(Christianity, Christian religion[faith])’의 관계 및 차이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에 기독교 사회윤리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희전문이 표방한 기독교주의에 대한 일반 사회와 학생들의 인식은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연희전문은 미국 선교부가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이지만, 기독교 선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인식되지 않았다. 연희전문은 “창립 당초에 선언한 동기와 정신이 오로지 조선 민중의 문화적 향상과 정신적 도야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었기에, “조선 교육계에 있어서 사학으로서의 최고학부”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sup>3)</sup> 연희전문 학생들에게도 기독교주의는 대단히 중요했다. 학생들은 1921년 10월 기독교 학생청년회(YMCA)를 조직하면서 당시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당한 도덕과 사상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기독교의 정신과 주의와 도덕과 이상”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학생들이 기독교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를 「폐지」 마다 뒤치고 찾고 고른다 할지라도 만인(萬人)이 두뇌(頭腦)를 착출(擄出)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정신과 주의와 도덕과 사상 이상으로 훌륭한 것을 발견하기가 참말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주의를 수용한 것이었다.<sup>5)</sup> 1922년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평생 사업을 “기독교주의 하에서 사회 개선(필설筆舌 또는 교육으로)”, “기독교주의 하에서 교육”, “기독교주의

3) “新進學者 總評(一), 延禧專門學校 教授層,” 「삼천리」 11월(1930), 42-44.

4) “延禧學生青年會畧史,” 「延禧」 1(1922), 연세학풍사업단, 『연희전문학교 교지 연회상』 (서울: 선인, 2014), 87-88.

5) 위의 책, 87-88.

하에서 상업가”로 설명하였다.<sup>6)</sup>

이 글은 연희전문이 표방했던 기독교주의가 무엇인지를, 1977년 4월 『연세춘추』에 “강성갑과 ‘한얼’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소개되었던 강성갑 목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과 실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7)</sup> 『연세춘추』에서 “후세에 정신적 사표가 될 만한” 인물로 소개했던 강성갑은 그동안 연세대 내에서도 거의 잊혔으나, 해방 공간의 청년·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김동길, 김재준, 박형규, 이규호, 정원식, 조항록 등 여러 인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sup>8)</sup> 김동길<sup>9)</sup>의 증언에 의하면, 연희전문 원한경 교장은 강성갑을 ‘연희가 배출한 가장 큰 인재’로 기억했다. 원한경은 부인상(婦人喪) 중이었음에도 1949년 7월 경남 진영에 내려가, 강성갑이 설립한 한얼중학교<sup>10)</sup>를 방문하고 아끼던 제자를 격려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8월 강성갑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원한경은 연희가 배출한 가장 큰 인재를 잃었다고 슬퍼했으며, 그의 억울한 누명을

6) “卒業生 略歷,” 『연희전문학교 졸업앨범』 1922년.

7) 『연세춘추』는 학교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본 대학교의 근본적인 정신사적인 맥락을 재고하고 전통으로서의 가치 승계가 어떤 인물들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 쉬임없이 흘러 내려오고 있나를 한 눈에 지켜” 보고자 “연세혈맥”을 기획하였다. 기사에 선정된 인물들은 언더우드와 에비슨, 정인보, 최현배, 오공선 등 대부분 학교의 설립자와 교수들이었으며, 졸업생 중에서는 김원벽, 윤동주, 강성갑 등을 소개하였다. ‘후세에 찬연한 선학의 얼,’ 『연세춘추』 1977년 6월 20일자, 제2면.

8) 강성갑에 대한 증언은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서울: 선인, 2020), 43-46 참조.

9) 김동길(1928-2022)은 연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교수, 교무처장,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조선일보사 논설고문, 제14대 국회의원,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을 거쳐 자유민주연합 상임고문을 지냈다. 민청학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10) 설립 당시의 학제에 의하면 한얼초급중학교였으나, 현재의 명칭인 한얼중학교로 표기한다.

풀어 주고자 노력했다.<sup>11)</sup> 교장에 취임하여 “기독교 정신의 아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 동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원한경은, 강성갑을 기독교 정신 즉 연희전문이 표방한 기독교주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로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강성갑은 해방공간에 경남 김해군 진영읍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강성갑의 실천은 연희전문이 추구했던 기독교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오늘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한국 기독교에 역사의 교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II. 실천의 준비 - 연희전문의 기독교주의

강성갑은 1912년 경남 의령에서 출생하여 마산사립창신학교, 마산공립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1월 경남 김해 장유금융조합에 취직하였다. 강성갑은 금융조합 재직 중에 오중은과 결혼한 후, 금융조합을 사직하고 1937년 4월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여 1941년 3월 졸업하였다. 강성갑은 청소년 시절 마산상업학교 재학 중에 독립마산예수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마산예수교회의 격렬한 분규 끝에 분립(分立)된 독립마산예수교회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평신도 중심의 실천적, 민중 지향적 교회로 설립되어, 마산 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산예수교회의 격렬한 분규 및 독립마산예수교회 분립의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강성갑은 독립마산예수교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교회당 건축, 청년회 등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13)</sup>

11) 김동길, 『백년의 사람들』 (과주: 나남, 2020), 48.

12)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35-37.

장유금융조합에 재직하면서 식민지 조선 농촌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던 강성갑은 무례리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농촌운동에 참여했다. 강성갑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독교 농촌운동이 농민을 농촌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농촌문제의 본질인 식민지 수탈 경제체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다.<sup>14)</sup>

기혼(既婚)으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갑이 연희전문 졸업생들이 선호(選好)하는 안정된 좋은 직장인 금융조합을 사직하고 연희전문에 입학한 것은, 연희전문의 학풍이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희전문은 일제의 식민지 근대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서구적 근대를 직접 수용·전파하는 사상적 거점으로 작동하는 등 조선 사회 내부의 요구에 자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5)</sup> 특히 연희전문 문과는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기독교 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학문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대안적인 아카데미즘을 일정하게 추구하였다.<sup>16)</sup> 연희전문은 폐지되었던 농과(農科)를 신설하여 실제 농업기술을 가르치고자 했으며, 1930년대 들어서 YMCA와 함께 정말(丁抹, 덴마크)식 농업수양소를 개설·운영하는 등 식민지 조선의 농촌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강성갑은 장유금융조합 근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의 한계를 확인하였고, 식민지 조선의 대안을 기독교적 가치를 기

13) 마산예수교회의 분규 및 독립마산예수교회의 분립과정은 위의 책, 61-69 참조.

14) 위의 책, 91-96.

15) 백영서, “일본제국권 기독교대학의 학풍과 계승,” 연세학풍사업단, 『일제하 연세학풍과 민족교육』 (서울: 혜안, 2015), 225.

16)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년. 1, 문과대학, 학과사』 (서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2015), 63-64.

반으로 하는 조선 민족의 자주적 근대화에서 찾았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모색을 위해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한 것이다.<sup>17)</sup>

그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연희전문에 입학했다는 것은 ‘역지 입학’ 이야기로도 확인된다. 증언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의 역지 입학은 기정사실로 알려져 왔다. 『연세춘추』는 입학시험에서 영어 때문에 낙방을 한 강성갑이 당시 백낙준 교장을 찾아가 입학을 간청했으며, 그의 열의와 신념에 감복한 백낙준 교장의 호의로 연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sup>18)</sup> 강성갑의 연희전문 역지 입학은 사실과 다르며,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연희전문 문과 별과(別科)에 입학하였다.<sup>19)</sup> 역지 입학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성갑은 이를 극복하고 연희전문에 입학하였으며, 입학자의 거의 절반이 중퇴하는 당시의 상황에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학업을 마쳤다.<sup>20)</sup> 증언에 의하면 연희전문 재학 중에 강성갑은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

17) 홍성표, 『한얼의 밑일이 땅에 떨어져』 111.

18) 기사 내용은 달리 당시 연희전문 교장은 원한경이었다. ‘연세혈맥-강성갑과 한얼정신,’ 『연세춘추』 1977년 4월 4일자, 제2면. 이외에도 ‘先驅者-洛東江의 血脈을 찾는 特別連載-姜成甲 牧師,’ 『경남매일신문』 1968년 7월 3일자, 제4면; ‘잊을 수 없는 인간상,’ 『국민보』 1960년 3월 30일자, 제2면; 이윤숙, “해방시대, 서럽고 가난한 이들의 참 스승 -한얼중학교 강성갑 교장,” 『우리교육』 11월(1993), 121;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교대 논문집』 3(1968), 272. 등에서 역지입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강성갑이 입학한 별과는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문학교 입학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널리 고등교육을 개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별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만 17세 이상으로서 구 「조선교육령」에 의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하였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본과에 준하여 운영하였다.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 연세통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181-184.

20) 1917년부터 1942년 사이에 연희전문 입학생은 3,176명이며, 그중 퇴학 1,489명, 사망 32명으로 중퇴자가 거의 절반인 1,521명이었다. 김성보,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현대 한국의 지성과 연세』 (서울: 해안, 2016), 17.

서 어렵게 학교를 다녔으나,<sup>21)</sup> 겸허하고 점잖은 모범생으로 보통학생과는 다른 위엄까지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25세의 만학도였던 그는 입학 후에도 남다른 신념과 의지로서 교우(交友)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공부도 썩 잘했다고 한다. 특히 사리에 밝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 한 번은 교우중 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결혼식에 참가했으나 그 혼자만이 수업에 남았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와 연희전문학교 문과 동기생인 정희석 음대 학장은 『강성갑은 겸허하고 점잖은 모범생으로 보통학생과는 다른 위엄까지 지니고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sup>22)</sup>

강성갑 재학 중에 연희전문은 일제의 탄압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선교사들의 교육인퇴(教育引退) 논쟁은 강성갑의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35년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36년 6월 선교사연회를 개최하고 교육인퇴를 결정하였다. 1938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장로교 선교회 총회에서는 1939년 3월 말까지 연희전문에서도 인퇴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원한경 교장은 조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학교의 설립 취지와 학생들의 교육열에 부응하고자 전도사업과 교육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유지하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대응에서 평양 숭실중학교의 맥쿤 교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도”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나,<sup>23)</sup> 원한경 교장은 “우리 예수교인에게 있어서

21)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271.

22) ‘연세혈맥 - 강성갑과 한얼정신,’ 『연세춘추』 1977년 4월 4일자, 제2면.

그중 크고 귀한 것은 양심(良心)으로서 그 양심의 명령에는 누구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4)</sup> 원한경 교장은 1938년 2월 초 북장로회 한국선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교사들은 학교를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으므로 위로를 느낀다고 밝혔다.<sup>25)</sup> 연희전문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인퇴 논쟁의 전 과정을 목격한 강성갑은 조선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독교인의 양심'을 강조하던 원한경의 선택은 그의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선택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선택의 관계 및 우선순위, 더 나아가 식민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성갑 재학 중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 1938년 2월 경제연구회 사건, 경제연구회 사건을 조사하던 중인 1938년 5월에는 흥업구락부 사건을 일으켜 연희전문학의 학생과 교수들을 탄압하였다. 강성갑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징학 처분을 받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sup>26)</sup> 그가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면 경제연구회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강성갑 재학 중에 상과 학생들의 자치단체인 경제연구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거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해산된 학생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학생

23) '宣敎開始 五十年에 이반 같은 苦悶은 처음,' 『동아일보』 1935년 12월 10일자, 제2면.

24) '미순學校 運命지고 延專 元漢慶 博士 歸國,' 『동아일보』 1937년 8월 8일자, 제2면.

25) *Repor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to Chosen Mission of Presbyterian Church in U.S.A(1938년 2월 초(추정))*, 연세학풍연구소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II)』 (서울: 선인, 2021), 601-602.

26)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10월 최현배 등이 검거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기에 강성갑이 연희전문을 졸업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다.

자치단체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기에 다른 과 학생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경제연구회 사건은 사회주의 학생운동단체였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함께 1926년 6·10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연희전문 학생회가 “사상단체와 연락, 학생 공산주의 운동 단체화”했다는 이유로 1932년 1월 해산된 이후, 학생들이 학생회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이를 감시하던 일제 경찰이 조작한 공안 사건이었다.<sup>27)</sup>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연희전문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민족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 당국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학문으로서의 사회주의 연구를 허용”했으나, 학생들은 “민족해방의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사회주의의 영향”하에서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sup>28)</sup>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공존·협력했던 연희전문 학생들의 분위기는, 강성갑에게 기독교 ‘신앙’과 사회주의 ‘이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희전문 학생들은 기독교 ‘신앙’과 사회주의 ‘이념’이 대립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이념으로 바뀌었거나 이념이 신앙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했기에,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하였다. 강성갑에게 기독교 신앙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sup>29)</sup>

강성갑 재학 중에 일제의 강압으로 연희전문문의 교과과정 또한 두 차례 바뀌었다. 1938년 3월, 이른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교육을 목적으로 국체명징(國體明澄),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 등 세 가지 교육방침을 천명한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과과정의 개편

27) 홍성표, “연희전문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간행물,” 『동방학지』 184(2018), 70.

28) 홍성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연희전문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2019), 216-217.

29)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139.

이 이루어졌으며, 전시 총동원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시점이었던 1940년에도 개편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성갑은 연희전문문과에서 4년 동안 성서, 조선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역사, 경제원론과 법학통론, 논리학, 문학개론, 사회학, 철학, 교육, 체조, 음악, 자연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였다.<sup>30)</sup>

강성갑은 원한경과 최현배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연희전문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들과 각별한 사제관계를 유지했다. 원한경은 조선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Modern Education in Korea”라는 논문으로 뉴욕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페스탈로치를 한국에 소개한 교육학자였다. 강성갑이 입학했을 때 문과 과장이었던 최현배는 “소극적이나 온건적이지요, 타협적이나마 저력이 강대한 모범 교수”로서 연희전문문과에 있어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는 교수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sup>31)</sup> 최현배는 “민족 개조와 사회 개량의 근본책이 교육”에 있음을 알고, 교토제국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 강의는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일깨워 후에 그의 농촌 부흥운동의 정신적인 기초를 이루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sup>32)</sup> 최현배는 해방 후에 한얼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아끼던 제자인 강성갑을 격려하였고, 억울하게 죽은 제자의 아들이 한글학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sup>33)</sup>

1941년 3월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한 강성갑은 당시 대학 수준의 신학 교육, 연구기관으로서는 일본에서 유일한 학교였던 교토의 도시사대학 신학과로 유학을 떠났다. 강성갑의 일본 유학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30) 연희전문에서 강성갑이 수강한 내역 및 교과과정의 개편내용은 위의 책, 114-118 참조.

31) “新進學者 總評(一), 延禧專門學校 教授層,” 『삼천리』 11월(1930), 43.

32) ‘연세혈맥- 강성갑과 한얼정신,’ 『연세춘추』 1977년 4월 4일자, 제2면.

33)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126.

도시사대학에서 창씨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주체적인 공부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의 도시사대학 신학과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시 체제하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선전하는 비기독교적인 교육내용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강성갑의 학적부, 성적표, 졸업논문 등에 의하면 전시체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충실한 신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앙과 신학의 균형을 갖추게 되었다.<sup>35)</sup>

### III.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定立)과 실천 - 노작교육과 국민신앙

#### 1. 기독교 사회운동의 시작 - 복음중등공민학교 설립

1943년 9월 도시사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강성갑은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해방을 맞은 강성갑은, 교회 내의 일제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경남노회 재건에 적극 참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다.<sup>36)</sup> 교회 내의 분열과 대립에

34) 호주인 그의 형이 일제의 강요와 억압 때문에 신고 마감일을 앞둔 1940년 8월 5일 ‘봉산(鳳山)’으로 창씨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강성갑 또한 ‘鳳山成甲’으로 창씨가 되었으나 연희전문은 물론 도시사대학에서도 창씨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도시사대학은 그의 호적을 통해 창씨명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적부와 성적표, 졸업논문 등 공식 서류에는 모두 ‘姜成甲’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일제의 창씨개명 강요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도시사대학이 기독교계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창씨명 사용을 거부하는 강성갑의 사례를 용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142-143.

35) 위의 책, 151-157.

36) 위의 책, 159-160.

실망한 강성갑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경남 김해 진영교회의 청빙(請聘)을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문제였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나라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으나,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이념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진영은 이러한 농촌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진영은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소작쟁의(小作爭議)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하자마(迫間)농장 소작쟁의가 일어난 곳이었고, 해방 후에는 농민조합 등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일제 강점기에 장유금융조합에서 근무했던 강성갑은 이웃했던 진영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진영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강성갑이 제시한 조건은 “진영교회에서 농촌운동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sup>37)</sup> 이러한 강성갑의 선택은 특별한 것이었다. 해방은 고등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으며, 미군정에는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출신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했다.<sup>38)</sup> 일제 강점기 농촌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계에서 해방공간에 농촌운동을 다시 시작한 사례는 유재기의 흥국형제단과, 김용기의 이상촌 운동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sup>39)</sup> 김용기는 당시의 분위기를 “약간의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들을 할 줄은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며, 그들의 “대부분이 현재 도회에서 최소한도 농촌의 그 비참한 생활만은 면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였다.<sup>40)</sup>

37) 한얼중고등학교 동문회 편, 『위대한 스승 강성갑 교장(그 생애와 사상)』(진영: 한얼중고등학교 동문회, 2000), 38.

38)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162-163.

39) 홍성표, “해방 이후 1945년~196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의미와 과제 - 기독교 농촌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4(2022), 91-93.

40)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서울: 창조사, 1968),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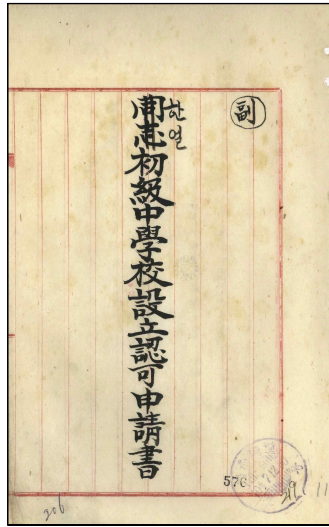
1946년 4월 진영교회 목사로 부임한 강성갑은 별도의 중등학교가 없었던 진영 지역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중등공민학교를 개설하는 것으로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농촌운동을 교육운동으로 시작한 것은 지역의 필요뿐만 아니라, 연희전문에서의 원한경과 최현배의 가르침에 따라 농촌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성갑은 진영교회 교인들의 협조를 받아 3~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6년 8월 15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복음중등공민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진영 대흥국민학교의 가교사(假校舍)를 빌려 야간학교로 개교하였다. 강성갑은 복음중등공민학교에 모인 200여 명의 “한국의 아들, 딸들에게 자기 말, 자기 글을 배워주고 자기 정신, 자기 주체를 바로 찾게 해주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sup>41)</sup> 강성갑은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일으키고자 영어 수업을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sup>42)</sup>

강성갑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복음중등공민학교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 학생들의 장래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의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자 정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강성갑의 실천은, 학생들과 지역의 현실적인 필요로부터 시작하여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정규 중학교 설립을 위한 재산 등 요건은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학교를 설립해야 할 이유와 필요는 분명했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 정규 중학교 설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왕 학교를 설립한다면 새로운 나라의 교육방향을 정립하고 실천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학교 설

41) 조항록, “농민교육의 개척자 강성갑,”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編, 『스승의 길』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4), 270.

42) 『심사수 진술서』 2012년 3월 29일.

립의 취지는 확장되었다. 한얼중학교 설립서류를 보면 이러한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설립서류에는 동지중학교로 되어 있던 학교 이름을 두 줄로 긋고 한얼중학교로 바꾸었다. 강성갑은 학생들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강성갑은 “여러분과 나는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아니고 뜻과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동지입니다.” 라고 말하며 학생들과 새로 만드는 정규학교의 교명(校名), 학교의 건축, 교육목적 등을 함께 의논하면서 ‘한얼’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림 2〉 한얼중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표지(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교장 선생님은 ‘동지(同志) 중학교가 어떠냐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동지야”라는 말씀에 모두가 찬성하였다. 얼마 후 교장 선생님은 학교 이름을 ‘한얼’이라고 함이 더 좋겠다고 제안하셨다. ‘얼’이란 사람의 마음, 뜻, 혼을 나타내는 순수한 우리 말이며, ‘한’은 ①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며, ② 크다(한 길=큰 길), ③ 하나, 같다(한 마음, 한 가지)는 뜻을 가지므로, 「한얼」이란 큰 정신, 민족정신 같이 하나로 뭉친 정신 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셨다.<sup>43)</sup>

정규 중학교 설립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강성갑의 부산대학교 교수직 사임이었다. 강성갑은 1946년 9월 부산대학교 한글맞춤법 담당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공민학교 운영을 통해 농촌 교육운동의 중요

43) 한얼중고등학교 동문회 편, 『위대한 스승 강성갑 교장(그 생애와 사상)』 40.

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매진하기 위해 1947년 8월 교수직을 사임하였다.<sup>44)</sup> 진영 지역은 “사업범위가 좁고 고생이 많을 것이니 같이 이 일을 끝내어 대학 교육을 같이 하자.”는 윤인구<sup>45)</sup>의 권유에, 강성갑은 “대학을 만들고 대학교육을 할 사람은 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농촌사회 개혁사업을 할 사람은 많지 않으니 진영으로 가야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였다.<sup>46)</sup>

## 2.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

강성갑은 자신의 교육관을 정리한 설립취지서 이외에 따로 글을 남기지 않았기에, 한얼중학교의 설립과정은 1950년 4월 부산사범학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을 직접 듣고 기록을 남긴 심진구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갑은 강연에서 “규정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인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가만 받아 놓으면 학교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의 교육관’을 적은 설립취지서 하나를 갖고 교육 당국 설득에 나섰으며, 특수목적의 학교라는 예외를 인정받아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은 공민학교를 운영하면서

44)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 부산대학교, 2006), 51. 『한얼초급중학교 설립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강성갑의 이력서에 의하면 1946년 9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고 1947년 8월 사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얼초급중학교 설립인가신청서』 1947년 12월 20일.

45) 윤인구(1903-1986)는 교육자이며 종교인이다. 부산 출생으로 1919년 부산 동래고등보통학교 3학년 때 3·1운동에 참가하여 퇴학당하였다. 1926년 메이지학원 신학부를 거쳐 1931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귀국하여 진주장로교회 강도사로 부임하였다. 해방후 미군정의 경남 내무국 학무과장으로 부임하여 부산대학 개교에 앞장섰으며, 1953년 부산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였고 1961년에는 연세대 총장을 맡았다.

46)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272.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정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었다. 정규 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교육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였던 것이다.

그 서류를 가지고 문교부에 가서도 모든 관계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교육포부를 설명하고 인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역시 법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었지요. “당신들이 이곳에 앉아서 도장만 찍고 있으면 이 나라의 교육방향이 바로 잡힐 줄 압니까? 이 나라의 교육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내가 해야 하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들이 해야 하오? 한 국가의 교육방향을 바로 잡는 일도 법 규정에 얽매어 못하게 했어야 말이 되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인가장을 손에 쥐어 보내겠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할 터이니 나의 시체를 치우겠소, 빨리 택일을 하여 주시오!” 했더니 관계관들이 합의를 하더니 특수목적 가진 학교이니 예외로 취급하여 인가를 해준다면서 인가장을 내어 주더군요.<sup>47)</sup>

강성갑은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의 현실을, 명백한 목적과 방향 없이 “그저 막연히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맹목적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쟁이」를 천시하는 사회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 쓸모없는 고등유민(高等遊民)만 길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조(李朝) 500년간 성리(性理) 공담(空談)을 숭상하고 실학과 노동을 천시한 풍조와 일제 잔재인 관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실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천시하고 인문을 숭상한 나머지 실업고등학교도 전부 인문고등학교화 하였으며, 대학에는 법과, 정치과에만 학생이 몰려들어 대학생 대부분이 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실업인, 기술인을 「쟁이」라 하여 천시하였기 때문에 후진국이 되었고 나라를 빼앗긴 쓰라린 역사를

47) 위의 논문, 276-277.

갖기 되었으며 빈곤이란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중략) 교육이란 교육 받은 사람에게 개적(個的)생활의 행복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중략) 이력서를 써서 관공서나 회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과인데, 어디 일자리가 있습니까? 다니다가 지쳐지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드디어는 자포자기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 나라의 청년들을 이런 경지에 빠트려 넣은 죄를 누가 지었나요? 물론 소비편중의 기형적 사회경제조직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지마는 그 대부분의 책임을 우리 교육자들이 져야 합니다. 교육이란 명백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막연히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맹목적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쟁이」를 천시하는 사회풍조에 휘말려 들어가 쓸모없는 고등유민만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 두어도 좋을까요?<sup>48)</sup>

강성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방된 조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피교육자의 개성과 그가 타고난 천질(天質)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교육방침을 확립하고 “한 가지 이상의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의 바탕으로 애토(愛土), 애린(愛隣), 애천(愛天)의 삼애(三愛)정신을 주장했다. 애토의 정신이란 “조선 민족의 ‘얼’을 사랑하고 애끼고 갈아 세계 인류에 공헌할 바를 찾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애린의 정신이란 “이웃을 위하여 나의 최선의 것을 바친다.”는 것이다. 애린, “곧 남을 사랑하는 정신에 대립되는 사상을 우리는 이기(利己)라고 부른다. 이는 곧 자기중심이다. 인간 사회에 모든 죄악인 이 자아중심 곧 이기에서 출발”한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48) 위의 논문, 274-275.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강조하는 교육의 노예가 되었기에 민족도 국가도 사회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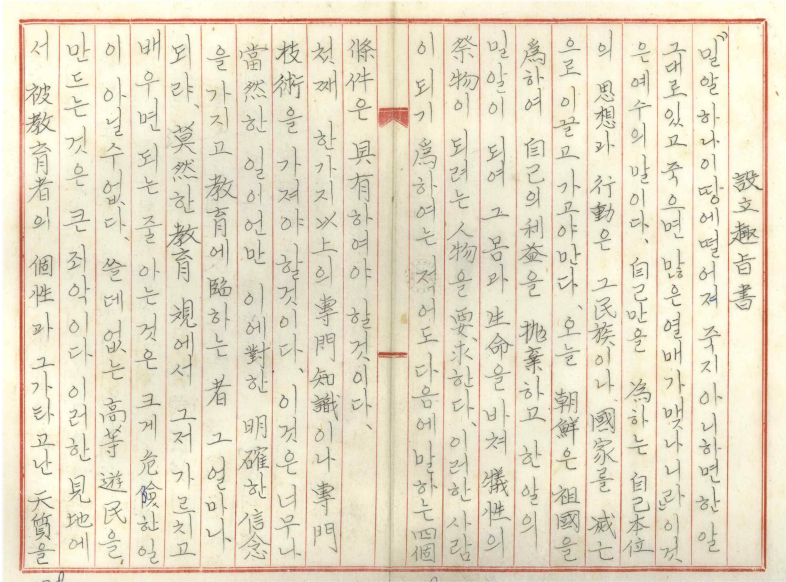
강성갑은 “애토나 애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은 애천의 신앙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자아 중심적인 인간에게, 교육은 길을 가르쳐 주고 도덕은 명령한다. 그렇지만 실천할 능력은 주지 못하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성의 창조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었다.

인간은 타고 날 때부터 자아중심적 존재이다. 이것을 교육의 힘으로 정조(正造)하지는 못한다. 교육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고 도덕은 우리에게 명령은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행할 능력은 주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과 도덕의 무력(無力)이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인간성에 새로운 창조적 변경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내부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절대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통하여야만 성취되는 것이다.<sup>49)</sup>

강성갑은 자신의 기독교적 교육관을 애토와 애린, 애천의 바탕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얻어 조국에 이바지하고 인류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강성갑은 한얼중학교에서 “조선의 재건은 농촌재건에 있고 농촌재건은 농촌에 대한 바른 정신과 바른 기술을 가진 지도 인물양성”에 있으므로 “농촌의 청소년을 상대로 정말적(丁抹的)인 교육방침을 채용하여 농촌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렇게 양성한 지도자는 “내 마을의 흙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를 이상화시키려고 마을을 지키며 일하는 인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를 중심하여 이론과 실

49) 『재단법인 삼일학원 설립인가신청서』 1947년 12월.

천을 일치시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정과 마을에 가서 실지로 살려 이상촌 건설에 착수하려 한다.”는 자신의 이상촌 건설에 대한 이상을 분명히 밝혔다.<sup>50)</sup>



〈그림 3〉 재단법인 삼일학원 설립인가신청서의 설립취지서 첫 부분(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간 사회의 성쇠 존망의 요추(要樞)이며, 비기(祕機)”라고 강조했던 최현배와,<sup>51)</sup>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주의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학교를 유지한 원한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당시 조선 농촌의 대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덴마크 그룬트비의 삼애주의(三愛主義)를 재해석한 것이었다. 강

50) 『한얼초급중학교 설립인가신청서』 1947년 12월 20일.

51) 최현배, 『朝鮮民族 更生의 道』 (서울: 정음사, 1971), 181.

성갑 이외에도 유재기, 배민수 등 여러 사람들이 삼애주의를 주창(主唱)했기에, 삼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강성갑의 교육관을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덴마크 그룬트비 사상의 본질이 교육에서의 실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교육관과 실천은 1958년에 설립된 풀무학 교보다 앞서는 것이며 이를 대한학교가 아닌 새 나라의 교육방향으로 주창(主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실천이었다. 설립취지서의 첫 부분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취지서는 성서의 한 구절, 즉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으로 시작한다.

“밀알 하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나니라” 이것은 예수의 말이다.

이 구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강성갑은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본위의 사상과 행동은 그 민족이나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야” 말기 때문에, 오늘 해방된 조선에 필요한 인재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 몸과 생명을 바쳐 희생의 제물이 되려는 인물”이라고 규정하였다.<sup>52)</sup> 설립취지서에 인용된 성서의 구절은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된 조선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다. 강성갑은 그 다짐을 그대로 실천했다. 심진구는 자신의 논문에서 강성갑을 교육사상가라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글자 그대로 언행일치,

52) 홍성표, “해방 공간 강성갑의 기독교 사회운동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45(2016), 263.

술선수범한 교육실천가”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한국의 교육방향을 올바르게 지시해 준 위대한 교육사상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가는 교육사상가란 면모보다는 더 교육실천가로서의 면모에 무게를 두는 것이 그를 옳게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하여 어떤 이론을 안락의자에 앉아서 조리정연하게 구상해 내기는 쉬우나 그것을 현실의 장에 실현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글자 그대로 언행일치, 술선수범한 교육실천가였다.<sup>53)</sup>

### 3. 한얼중학교 설립과 노작교육(勞作敎育)의 실천

강성갑은 1947년 12월 재단법인 삼일학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1948년 1월 26일 문교부장 오천석의 허가를 받아 한얼중학교를 설립하였다. 한얼중학교의 설립인가는 재단의 기본재산 등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sup>54)</sup>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기에 학교설립을 인가하면서 오천석은 “교지(校地), 교사(校舍) 및 시설을 6학급 학생을 수용 교육할만한 정도로 속히 확보케 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였다.<sup>55)</sup> 오천석은 한얼중학교 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등 설립요건은 미비(未備)하였지만, 미군정하의 과도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강성갑의 기독교적 교육관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당시의 시대적 과제에 부합

53)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279.

5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로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설립취지서에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기입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학교 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성표, 『한얼의 밑이 땅에 떨어져』 194-197.

55) 『財團法人 三一學園 設立 許可 申請의 件(文普 第十九號)』 1948년 1월 26일.

했기에 그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특수목적의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 설립을 인가해 준 것으로 보인다.<sup>56)</sup>

한얼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진영교회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취지에 공감하고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당시의 농촌 상황에서 학교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수업료는 대략 벼 한섬, 또는 보리 한가마 정도로 대신 받았기에 지역사회에서 인기는 많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더욱이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라, 와서 배우라.”고 했기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강요하지 않았다. ‘뜻’만 가지고 의령에서 온 7~8명 학생의 숙식을 해결해주어야 했고, 교사들의 봉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기에 최소의 경비로써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식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의 학교 분위기는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이 생동(生動)하고 있었다.<sup>57)</sup>

부족한 교사(校舍)의 확보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강성갑은 학교 부지로 진영역에 인접한 부지 3,000평과 곡물창고 3동을 확보하였다. 이 땅의 지주였던 김경진은 1930년대 격렬한 소작쟁의가 일어났던 진영 하자마 농장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부산에 있던 김경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설득하여,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sup>58)</sup> 학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는 교사(校舍)의 신축이 중요한 과제였다. 강성갑은 교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적산(敵産)재산의 불하 등 정부의 원조를 받고자 애쓰지 않았다. 교육에 뜻을 가진 교육자와 교육을 받고자 모여든 학생들과 학부모들, 진영교회 교인들, 진영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스스로 이룩하고자 하였다. 교사 신축을 위한 재정과

56)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198-200.

57) 위의 책, 205-206.

58) 『최갑시 구술증언』 1982년 1월31일. 증언에 의하면 강성갑은 학교 부지를 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후일 싼값으로 매입했다고 한다.

자재가 부족했기에 고민하던 강성갑은 진영에 많이 있던 흙을 이용하여 건물을 짓기로 했다.

강성갑이 흙벽돌 교사 건축에 앞장서는 모습을 목격한 진영 지역 사람들은 교사 신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얼중학교는 진영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진영 출신 소설가 김원일의 자전적 소설 『아들의 아버지』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림 4〉 완공된 한얼중학교 흙벽돌 교사(校舍)

그는 새벽 별이 스러지기 전에 임시 천막에서 잠이 깨면 기도로 아침을 맞이한 그때부터 흙벽돌 만들기에 나섰다. 찰흙을 지게로 날라와 짚을 섞어선 목재 사각 틀에 질흙을 넣어 흙벽돌을 한 장 한 장 찍어냈다. 아침밥을 한술 뜨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때야 읍내 청년들이 찾아와 강 목사의 작업을 도왔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읍내 공청 회원도 있었다. (중략) 강 목사의 헌신적인 자세와 교육에 대한 열의, 근면하고 겸손한 인품이 읍내에 알려져 그를 존경하여 따르는 사람이 늘어났다. 진영 장터 주변의 일정한 일거리 없이 빈

등거리며 노름에 빠진 자나, 허구한 날 술주정을 일삼는 주정뱅이나 건달패를 두고는, “성인군자가 어데 책에만 있더나, 지발 한얼핵교 맹근 강목사 뽀 줌 바라.”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sup>59)</sup>

강성갑의 실천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은 것은 노작교육(勞作教育)의 실시였다. 노작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능동적인 정신 및 신체의 작업을 중심원리로 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당시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 과정 및 내용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실천한 학교는 많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 사범대 학생이었던 정원식<sup>60)</sup>은 강성갑의 노작교육 실천을 전해 듣고 그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 목사는 한얼중학교를 설립한 경위를 설명하고 흙벽돌을 구어서 농촌의 가옥을 개조하는 노작교육의 실체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강연이 절정에 다다르자 감동을 못 이긴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근 두 시간 동안의 강연이 몇 분간의 천둥처럼 느껴졌다. 강연이 끝나도 학생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양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마침내 상기된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강 목사를 밀다시피 빈 강의실로 모셔갔다. 강 목사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미 날은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은 강 목사를 놓아주지 않았다. 20여 명의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강 목사를 따라 당장 한얼중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이제 막 시작한 노작교육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sup>61)</sup>

강성갑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기의 생존을 위해 누구에게도 부담을

59)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3), 179-180.

60) 정원식(1928-2020)은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육자이며 철학자, 정치인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문교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61) 정원식, 『변혁의 시대에서: 정원식 회고록』 (서울: 기파랑, 2010), 18.

주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기술을 꼭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2)</sup> 교사 신축과정이 바로 노작교육의 실천이기도 하였으며, 한얼중학교에는 성냥공장, 기와공장, 목공장 등이 있었고 기술자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였다. 성냥공장에서의 과학 수업을 통해 생산된 성냥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판매하여 자신의 학비로 사용하게 했기에 상업 실습으로 이어졌다. 강성갑은 학생들에게 기술자들을 반드시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였고, 기술자 선생님들의 월급은 교장인 자신의 월급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별하지 않았다.<sup>63)</sup> 학교 교사 신축을 마무리한 이후에 강성갑은 노작교육의 건축 실습을 통해 흙벽돌 건축법을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일이 끝나면 다음에는 학교 주변의 모든 주택을 흙벽돌 양옥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학교교사의 준비는 집 한 채를 지을 대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 대지에다 날씬한 흙벽돌 양옥을 지어놓고 그 마을에서 제일 빈곤한 가정을 찾아가 이사케 하고, 그 대지를 고루어 또 그곳에 흙벽돌 양옥을 지어 둘째로 못사는 가정을 이사케 하는 식으로 해나가면 학생들의 건축 실습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마을은 흙벽돌 양옥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sup>64)</sup>

한얼중학교의 교사 신축과정은 당시 건축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흙벽돌을 사용한 창조적인 자립의 사례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이 나라 교육계에 일대 파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sup>65)</sup>

62) 조향록, “농민교육의 개척자 강성갑,” 273-274.

63)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210.

64)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277.

65)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218-220.

#### 4. 강성갑의 국민신앙(國民信仰)

강성갑의 실천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민신앙’이라는 과목이다. 한얼중학교 학칙에 의하면 ‘성서’를 ‘국민신앙’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쳤다. 당시 상황에서 학칙에 규정된 교과과정을 제대로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실천하던 중에 그가 희생당했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국민신앙 과목의 목적은 새로운 나라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덴마크의 그룬트비가 주도했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은 오래된 기독교 국가인 덴마크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다. 우치무라 간조의 『덴마크 이야기』를 통해 농업국가 덴마크의 부흥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교신<sup>66)</sup>은 무교회주의 공동체 모델에는 높은 정신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덕으로 설명하였다. 김교신은 “개인과 가정의 구원, 사회와 국가의 융성은 모두가 건전한 도덕 생활의 기초”위에서야 하며, 도덕이란 “생활의 근본방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 곧 신앙이 도덕”이라고 주장했으나,<sup>67)</sup> 강성갑은 기독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성서를 ‘국민신앙’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치고자 했다.

강성갑은 자기중심적 존재인 인간성의 창조적 변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국민신앙을 교육의 정신적 기초로 하고

66) 김교신(1901-1945)은 함흥보통학교를 거쳐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1922년 도교고 등사범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으나, 그 뒤 지리·박물과로 전과하여 1927년에 졸업하였다. 도교 유학 당시 무교회운동을 전개하던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당시 한국인 유학생 송두용, 함석헌 등과 조선성서연구회를 조직하였고, 귀국하여 월간 동인지 『성서조선』을 창간하였으나 성서조선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아 1년간 옥고를 치렀다.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양정중학교, 경기중학교, 개성 송도중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67) 노평구 엮음, 『김교신 전집 1: 인생론』 (서울: 부키, 2001), 197. 이 글은 『聖書朝鮮』 1937년 9월호에 “예언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이었다.

노작교육을 교육의 구체적 방법으로 삼아 실천하고자 하였다. 강성갑의 국민신앙은 연희전문에서의 기독교주의 교육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희전문의 교육방침인 “전문교육을 시(施)하여 종교적 정신의 발양(發揚)으로써 인격의 도야(陶冶)를 기(期)”한다는 것과 상통(相通)하는 것이었다.<sup>68)</sup> 기독교주의의 실천을 목적으로 했던 연희전문의 성경교육은, 궁극적인 가치 지향성을 추구하는 ‘종교적 교육’으로 기독교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강성갑이 한얼중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을 꿈꿨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으로 국민신앙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강성갑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를 믿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기적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에 끌려 남을 이용하고 해치면서 지옥으로 향해 수직 낙하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격이 변화되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천국으로 향해 수직 상승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sup>69)</sup>

방학 때 진영에 내려와 강성갑의 실천을 직접 목격했던 김동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로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해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을 특별히 기억하였다.<sup>70)</sup> 강성갑은 우리의 생활도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해야 한다며, “와서 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

68)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하)』 (서울: 선인, 2013), 30. 연희전문 교의 교육방침은 1932년 『연희전문학교 상황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된다.

69) 『심사수 진술서』 2012년 3월 29일.

70) 김동길, “같이 살기 운동의 강성갑 목사,” 『신동아』 5월(1973), 170.

였다.

‘와서 보라(Come and See!)’ 요한복음 1장 38-39절 설교를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다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본받아 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같이 누가 언제 와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다.<sup>71)</sup>

강성갑은 목사였기에 매일 아침의 직원 조회는 반드시 성경낭독과 기도로 시작하였으나, 주일의 교회 설교는 무의미하니 그 시간에 이웃을 위하여 작은 봉사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그는 형식주의를 배격했으며 실천성을 강조했다.<sup>72)</sup> 주일예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 진영역 화장실 청소는 당시에 주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sup>73)</sup> 강성갑은 거리 청소를 마치고 돌아와 학생들에게 사회의 어디로 가든지 깨끗한 곳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지 말고, 가장 더러운 곳을 찾아가 그곳을 가장 깨끗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sup>74)</sup>

강성갑에게 국민신앙은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좌익활동 경력자를 교사로 채용한다는 비판에 강성갑은 “나에게는 빨갱이고 노랭이고가 없다. 마음 고치고 예수 믿고 그 인격이 변화되어 나와 손잡고 일하면 누구든지 나의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하였으며,<sup>75)</sup> “좌도 우도 있을 수 없다. 민족중흥의 대도는 일치단결하여 배우고 일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sup>76)</sup> 강성갑은 공민학교를 운영하던 중에 농민집회에 여러

71) 『심사수 진술서』 2012년 3월 29일.

72) ‘연세혈맥- 강성갑과 한얼정신(2), 『연세춘추』 1977년 4월 11일자, 제2면.

73) 문화봉, 『두무산 민들레』 (서울: 형설출판사, 1980), 87.

74) 한얼중고등학교 동문회 편, 『위대한 스승 강성갑 교장(그 생애와 사상)』 46.

75) 위의 책, 39.

차례 참석하여 농촌문제에 대해 연설하기도 했으며,<sup>77)</sup> 한얼중학교 교사 신축과정에는 공청(공산주의청년동맹) 단원들도 참여했다고 한다.<sup>78)</sup> 강성갑에게 신앙의 목적은 인간이었으며 다른 그 무엇도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강성갑의 실천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을 받았다.

#### IV. 나가는 말

강성갑은 그 자신이 설립취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 몸과 생명을 바쳐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강성갑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8월 2일 밤, 공산주의자로 몰려 수산교 아래 낙동강변(洛東江邊)에서 총살당하였다.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최갑시의 증언에 의하면 강성갑은 “그냥.... 성서 그대로야. 복을 달라고... 이 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학교 잘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참된, 아버지가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치고 총살당했다.<sup>79)</sup>

한국전쟁 중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된 다른 희생자들과는 달리 강성갑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며, 그를 살해한 경찰 지서장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 강성갑이 총살당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그의 시신이 낙동강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에 대한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운구행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950년 10월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은 “우익진영에 열렬한

76)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266.

77) 홍성표,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172.

78)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180.

79) 『최갑시 구술증언』 1982년 1월 31일.

동지”인 강성갑을 지서장 김병희가 “세력다툼과 물질에 눈이 어두어” 그를 “공산당으로 모라” 살해했다는 소위 진영살인사건의 전모(全貌)를 발표하였다.<sup>80)</sup> 당시로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4일간 계속되었던 군법회의 끝에, 재판장 김태정은 피고들의 범죄행위는 “충량한 국민을 공산당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 민족의 피해 실로 공비(共匪)에 못지않다.”는 재판의 소감을 밝혔다.<sup>81)</sup>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5월에는 함태영 부통령, 경남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얼중학교에서 추모동상 제막식과 추모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음에도,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이념의 이유로 잊혔다.

앞에서 살펴본 강성갑의 실천은 연희전문이 주창한 기독교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강성갑의 실천을 통해 살펴본 연희전문의 기독교주의는, 이념을 넘어서 인간을 중심에 둔 것이었다. 물론 한계는 있었으나 조선의 기독교인으로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제 강점기 연희전문 학생들의 기독교주의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으며, 해방공간에서 강성갑의 기독교주의는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보다는 기독교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기 확신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인간의 책임과 양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론’보다는 ‘실천과 희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희전문 설립과 관련하여 기독교 선교의 목적과 방법을 둘러싸고 치

80) ‘所謂 進永殺人事件 真相, 愛國者謀略殺害로 判明, 勢力紛爭의 惡質輩 嚴罰方針,’ 『국제신보』 1950년 10월 1일자, 제2면.

81) ‘進永事件 結審公判. 主犯 金炳義엔 死刑, 有罪五名 無罪七名을 言渡,’ 『국제신보』 1950년 10월 8일자, 제2면.

열하게 전개되었던 선교사들의 논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및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신사참배 강요 등과 관련한 역사 인식의 문제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념의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잊혔으나 강성갑의 실천은 해방공간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널리 기억되어야 한다. 특히 그가 주창하고 삶으로 실천했던 국민신앙과 연희전문의 기독교주의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오늘의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를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 김동길. “같이 살기 운동의 강성갑 목사.” 『신동아』 5월(1973), 168-171.  
\_\_\_\_\_. 『백년의 사람들』. 파주: 나남, 2020.
-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창조사, 1968.
-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3.
- 노평구 엮음. 『김교신 전집 1; 인생론』. 서울: 부키, 2001.
- 문희봉. 『두무산 민들레』. 서울: 형설출판사, 1980.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 부산대학교, 2006.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편. 『스승의 길』.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4.
-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교대논문집』 3(1968), 261-282.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현대 한국의 지성과 연세』. 서울: 혜안, 2016.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년. 1, 문과대학, 학과사』. 서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2015.
-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하)』. 서울: 선인, 2013.
-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 연세통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9.
- 연세학풍사업단. 『연희전문학교 교지 연회(상)』. 서울: 선인, 2014.  
\_\_\_\_\_. 『일제하 연세학풍과 민족교육』. 서울: 혜안, 2015.
- 연세학풍연구소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II)』. 서울: 선인, 2021.
- 육성득. “대학 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 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2021), 253-386.
- 정원식. 『변혁의 시대에서: 정원식 회고록』. 서울: 기파랑, 2010.
- 최현배. 『조선민족 갱생의 도』. 서울: 정음사, 1971.
- 한얼중고등학교 동문회 편. 『위대한 스승 강성갑 교장(그 생애와 사상)』. 진영: 한얼중고등학교 동문회, 2000.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서울: 선인, 2020.

\_\_\_\_\_. “해방공간 강성갑의 기독교 사회운동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45 (2016), 251-279.

\_\_\_\_\_. “연희전문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간행물.” 『동방학지』 184(2018), 55-83.

\_\_\_\_\_.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 연희전문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2019), 187-224.

\_\_\_\_\_. “해방 이후 1945년~196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의미와 과제 - 기독교 농촌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4(2022), 87-120.

『경남매일신문』, 『국민보』, 『국제신보』, 『동아일보』, 『삼천리』, 『연세춘추』.

『심사수 진술서』 2012년 3월 29일.

『연희전문학교 졸업앨범』 1922년.

『재단법인 삼일학원 설립인가신청서』 1947년 12월.

『최갑시 구술증언』 1982년 1월 31일.

『한얼초급중학교 설립인가신청서』 1947년 12월 20일.

논문투고일: 2023년 07월 06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 국 문 초 록 •

---

선교사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설립된 연희전문학교는 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을 ‘기독교주의’로 규정하고 실천하였다. 원한경 교장이 ‘연희가 배출한 가장 큰 인재’로 인정했던 강성갑은 연희전문이 ‘기독교주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강성갑은 해방공간에 경남 김해군 진영읍에서 모두가 행복한 새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에 앞장섰다. 강성갑은 자기중심적 존재인 인간의 창조적 변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나라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국민신앙’을 주창하였고 삶으로 실천했다. 이러한 강성갑의 실천은 연희전문이 추구했던 ‘기독교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오늘의 한국 기독교에 역사의 교훈으로 의미가 있다.

**주제어:** 국민신앙, 노작교육, 기독교주의, 기독교 교양교육,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 사회운동

---